■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희망의 나라(대한민국)　　성경: 에베소서 2장 10-20절

Tag: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엡2:10-20)

우리나라는 현재 갈림길에 서 있다.

갈수록 체제전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갈등 속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는 각각 자신이 지지하는 체제를 외치는 두 그룹의 목소리가 크다.

한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촛불을 일으키고 그 여파를 몰아서 횃불까지 들고 싶어 안달 난 무리들의 외침이 있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외치며 손에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과거, 나라에 위기의 순간을 보냈던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크다.

체제 전쟁의 전선이 38선이 아닌 광화문에 펼쳐져 있으며, 다들 자신의 신념에 확고하다.

매일 카페에 들르면서 건강 때문에 옥수수 수염차를 구매하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항상 휴대폰으로 애국방송을 크게 틀면서 결코 한 순간도 끄지 않으신다. 이분들이 기를 쓰고 오래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와 신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체제전쟁을 해 온지가 어언 77년이 넘어 80년이 다 되어 간다. 80 주년이 되기전에 하나의 체제로 통일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서로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며 공격한다.

사실 극우와 극좌의 대결로 봐야 한다. 일반 시민들은 그 정도로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뚜렷한 현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세력이 강하게 뭉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이러다 나라 말아먹겠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멀리서, 그리고 영적으로 국제정세를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두하다 보니 자칫하면 중국에 연해주 지역

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원래 이 지역에 1870년부터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기도 해서 러시아가 이 지역을 한국에 매각하려 할 것이라 추측하는 자들도 있다. 왜냐면 쿠릴열도를 일본이나 한국에서 매입해 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몇 달 전 비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혼란한 틈을 타서 전쟁으로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힘에 부친 러시아는 그 전에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패전에 따른 배상금 문제가 심각함)

이미 몽골에서는 한국화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 따라하기가 유행이다. 몽고반점끼리 통하는게 있나보다.
이미 한국은 오래 전부터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문화 강국, 한국식 가치관 전파 중. 한국식 가치관에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이 스며 들었다.
-결코 조선의 가치관, 고려의 가치관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이 우리나라를 깨어나게 하였고, 독특한 한국식 가치관이 재정비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여기에 실패함. 사무라이 가치관. 독일 문명을 받아들일 때 유대 기독교 문화는 껍데기만 가지고 들어옴. 그 안에 기독교 영성은 없음.
-미야자키가 은퇴 이후에는 그 껍데기마저 사라짐. 온갖 일본식 미신문화가 판을 치게 되면서 세계화와 멀어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한반도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되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명이며, 책임이며, 숙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위기 중이고, 미중 패권 전쟁으로 중

국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이웃 나라 일본은 사무라이 율법주의에 갖혀서 50년 이상 변화를 멈추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직 한국만 체제전쟁으로 시끄럽다. 이는 영적 전쟁이고, 사상전쟁이고, 문화전쟁인 셈이다. 이 복합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훌륭한 지성, 감성, 포용력을 장착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빠르기까지 하다.

그러므로 젊은 여러분. 8.15 해방 못지않는 변화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6.25 사변 못지 않는 영적 전쟁터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논쟁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연습하고, 경험해야 한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 젊은이들은 앞으로 세계의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계시를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예비 하셨고, 여러분을 훈련 시키셨다.

>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조선 시대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나 수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셨고, 지금은 한국이 바로 선교 강국이 되었다. 세계사에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가 몇 없다.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식구라는 뜻이다.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엡2:10-20)

희망의 나라로 (1931년)

현제명 작사 · 작곡

1절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개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찬 곳 희망의 나라로

2절

밤은 지나가고 환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들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찬 곳 희망의 나라로

기도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소중히 품어 주시고 모든 환란에서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 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주의로 암울한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진리로, 오직 기도로, 오직 열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진리는 더욱 강한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진리의 강함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국민이, 특히 젊은이들이 소망 가득하고 영성이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한국의 여성주의 성경: 창세기 1장 26-31절

Tag: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1:26-31)

여성운동 약사

*1927년 기독교청년회관 YMCM 에서부터시작(근우회)-조선 자매들아 단결하라!

-1980년대부터 여성운동 본격화 됨. 여성의 전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반대 운동.

-김대중 정부때부터 여가부 신설(2010)로 국가페미니즘 시대를 엶.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 주도 여성운동이 됨.

-현 정부 들어 여가부 폐지 운동이 시작됨.
-다른 부서와의 충돌;해외관련 문제는 외교부와, 게임규제 등 청소년문제는 문체부와(마인 크래프트 미성년자 사용불가), 군가산점 문제는 국방부와, 가족분야는 보건복지부와 겹침.
-성차별 성희롱 문제-국가 인권위원회와 겹침.
-초중고 교과서의 인물을 모두 성비율을 1:1로 하자는 주장은 교육부와 마찰 중.
-2020년 여성 소방관을 늘리라-소방청과 마찰
-거의 모든 부서에게 이래라 저래라
-임명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지배받는 여가부

*여성 운동이 국가 주도가 되면서 급진적 여성주의의 정부 주도 사업으로 변신

2019년 CNN 보도;한국의 젊은 남성들, 페미니즘과 싸우고 있다.(YTN) 댓글 :국내 언론은 보도 안하는걸 해외언론이 해주네 ㅋㅋㅋ 이게 나라냐

방송은 "지난 5월 조사에 따르면 79%에 이르는 20대 남성이 자신들이 심각한 성차별의 피해자라고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2020년 기준 선진국 중 성별 임금 격차(31.5%)가 가장 크고 상장사 여성 임원 비율은 5%밖에 안 되는 나라"라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던 피터슨의 강연이 유튜브에서 인기. 한글 자막까지 고스란히.
-유리천정;고위직일수록 경쟁이 심한데, 여성이 불리함.
-그는 마르크스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낳았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이 마르크스주의의 후기 형태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정

체성 정치와 엮어서,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정체성 정치가 사실은 하나의 틀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막스주의자즐은 이 견해 반박함. 포스트모더니스트도 이 견해 싫어함)

-남성성(Masculinity) 상실의 시대
;근육남 오 예! 마초; 오 노!
;그러나 젊은 남성들은 갈 길을 잃었다.

-남성성은 질서이고, 여성성은 혼돈(카오스, chaos)이다.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남성의 IQ;대칭군의 숫자가 높게 나옴. 수학을 잘 하는 남성은 말을 잘 못함.
-여성일 경우 수학도 잘하고 말도 잘함. 그래서 직업선택의 폭이 넓음.
-수학을 잘 하는 남성의 경우 이공계열로 갈 확률이 높음. 여성은 1,2% 정도.
*책임을 강조하는 교수. 책임을 잃어버린다면,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
-젊은 남성들은 책임감에 굶주려있다.
-남자는 책임의식을 잃으면 시체나 같다.
-심슨에 등장하는 호머는 전형적 혐오남성. 그러나 언제나 그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지리 고생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 그것이 남자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책임은 남성과 다르다. 신체 구조상 그렇다. 육아와 가정을 돌보는 책임이 있다. 보통 여성은 이런 책임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쓴다. 본능이다.
-고귀한 책임의식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건 충동적이고, 저급한

쾌락 뿐이다.

-한국 여성들이여 계속해서 한국 남성들에게 한남충이라 하며, 할아버지들은 틀딱이라고 비웃고, 어린이는 한남충이라고 할 것인가?
-책임을 짊어져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자기혐오 허무주의에 빠진 젊은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성들은 무언가를 하러기기를 결정해야 한다.
-썰매없는 썰매개가 될 것인가? 지루해서 자기 다리나 물어뜯고 있을 것인가?
-책임감, 짊어질 짐이 없는 남성은 결국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고 말 것이다. -책임이 없는 남성은 만성 통증 증후군과 우울중에 시달리다가 마약에 빠질 것이다.
-책임의식이야말로 이 문화에 대한 해독제.
-권리를 쫓지 말고, 책임을 쫓아야 한다.

-피터팬이 될 것인가? 남성이 될 것인가?

*여성들이여 스스로를 책임지려 하지 말라. 그것은 남성들에게 맡겨라. 그네들이 책임져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남성과 여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지, 서로 갈등관계에 있지 않다.

-둘이 하나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창세기 1장 이상의 가치, 목표, 책임, 행복은 세상에 없다.

-평강공주 작전을 배우라.
*왜 페미니즘이 성행하는 요즘 왜 남성들의 기가 죽고, 기만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은 남성들이 많아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남성이 성폭력자가 아니라, 사회부적응자가 성폭력자이다.